

우리는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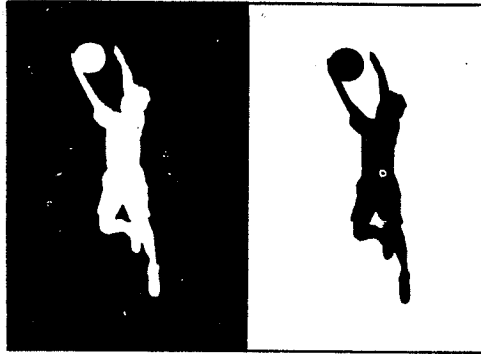


그림 속의 두 사람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로 재어 보면 왼쪽 사람이 실제로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높이로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림의 배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배경만 믿고서 우리의 위치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7)-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자

여성을 사귄 때 엄마나 아버지의 의견을 되도록 따르거라

그분들은 배우자란 어떤 인물이여야 함을 이미 터득한 분이시다.

특히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100% 따를수록 성공하는 배우자 선택임을 잊지마라.

엄마가 딸에게

돈

돈이 생기면 화장품보다 책을 사거라

젊었을 때 청바지를 입은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의 특권이다.

다 쓴 화장품 병을 진열한 것보다 다 읽은 책을 진열한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케 되거구나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City 한인 교회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1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0월 3일
☎262-3717/021-292-1639, ☐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주일성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주일이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며 또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주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예배와 휴식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목적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에는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동안에도 은혜로 돌봐주신 그분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병든 상태입니다. 주일뿐만은 아니지만 주일에는 특히 하나님이 우선이라야 합니다. 아침에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후에는 영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심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날은 쉬는 날이므로 피로했던 몸을 쉬게 합니다. 휴식을 하면서도 이날을 내 마음대로 방자히 써서는 안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어서 주님을 염두에 두고 보내야 합니다. 나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쉼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좋습니다.

주일은 되도록 가게문을 닫으십시오. 주님의 날에 다른 날과 같이 사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현대에 와서 어떤 직장은 주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의사라든가 소방원이라든가 특수 분야인 경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과 육과 마음의 쉼을 얻어 다음 한 주일 동안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 일 예 배

- *묵 도
Silence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찬 송 28 장
Hymn
- *성 시 교 독 12 (시 32편)
Response Reading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찬 송 474장
Hymn
- 기 도
Prayer
-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6: 9 - 13
Scripture Reading
- 복 음 송 가
Praising
-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 설 교 가르쳐 주신 기도
Sermon
- 설교후 기도
Prayer
- 찬 송 342 장
Hymn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헌 금 기도
Offertory Prayer
- *응 답 송 "좋은신 하나님"
Response Song
- *위탁의 말씀
- *축 도
Benediction

- 오후 1:30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다 같이
- 최윤호 집사
- 다 같이
- 아 동 부
- 김성국 목사
- 다 같이
- 인 도 자
- 다 같이
- 인 도 자
- 김성국 목사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1. 금주 구역예배
장소: 서백화 권사 11 Nereus Pl. Mairangi Bay. ☎479-1898
시간: 7:30 pm
지난주간 구원론 공부에 이어 2주간은 성령론을 공부합니다.
2.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를 통해 성령론 공부를 마친 후 수요일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수요일예배를 위한 예배당 사용
3. 지난주간 등록을 환영합니다.
이 지 훈 집사(서백화 권사)
11 Nereus Pl. Mairangi Bay. ☎479-1898
4. 임시 등록교우회의
다음주일 예배 후 임시 등록교우 회의를 갖겠습니다.
5. 성찬식
10월 넷째주일(24일)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창립 100일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갖겠습니다.

끝없는 관심

지난 주간 Palmerston North에 있을 때 사용하던 교회(ST.Andrew's)로 부터 교회소식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지내는 담임목사인 Edwin Clark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임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거기에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설교 원고를 함께 보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인 나는 먼저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 읽어 본 후 설교를 들으면 영어로 하는 설교가 훨씬 잘 들렸습니다. 그 또한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젠 다시 당신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데도 영어에 도움이 되라고 그랬는지 함께 보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사랑은 세심하면서도 이기적인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떠난 나를 더구나 이방인인 나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람도 아닌데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그렇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3	최 윤 호	한 건	한 건
10	서 백 화	지 윤 수	지 윤 수
17	한 중 배	김 효	김 효
24	송 정 섭	서 백 화	서 백 화
31	지 윤 수	최 윤 호	최 윤 호